

石顛 鼎鎬의 국토 기행시

김석태*

<차 례>

1. 머리말
2. 여행편력과 기행시
 - 2.1. 여행과 문학의 相生
 - 2.2. 기행시 제작
3. 석전의 국토 기행시
 - 3.1. 仙界의 풍경 제주
 - 3.2. 佛法이 顯現한 금강산
 - 3.3. 雄渾한 氣像의 백두산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근대의 불교사상가이자, 교육가, 문학가인 石顛 鼎鎬의 기행시에 대한 고찰이다. 석전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을 두루 여행 하였다. 그 여행의 견문과 감회를 다수의 시문으로 남겨 인간의 삶과 여행, 그리고 문학이 한데 어우러진 다양한 기행시문학을 조성하였다. 그의 시작품의 대부분이 기행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제주도, 금강산, 백두산 기행시를 중심으로 석전의 국토 기행시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제주 기행시는 선경의 이미지를, 금강산은 불교적 분위기를, 백두산은 웅혼한 기상을 느끼게 한다. 각 지역의 산수자연과 지나온 역사의 감회에 따라 시의 양상도 다른 것이다.

석전의 기행시는 여행 목적지에서의 감상 뿐만아니라 출발에서 돌아오기 까지 여행의 과정을 시로 표현하고 날짜, 동행한 사람 등 시작의 배경이 되는

* 전남대학교

상황을 적절하게 기록하여 여정을 알게 하였다. 이렇게 시문 자체가 맥락이 있는 여행기로 느껴지게 한 것은 석전의 기행시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석전은 우리 땅 곳곳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자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 보았으며 그 감회를 시인이자 수행승의 감성과 시각을 통하여 시로 형상화 하였다.

핵심어 : 석전정호, 기행시, 제주도, 금강산, 백두산

1. 머리말

우리 문학사에는 여행을 통해 얻은 작품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주는 세계 또한 다양할 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우리 땅에 대하여 다시금 성찰케 하는 기행시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행이란 말 그대로 여행의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 여행이 때로는 목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한가한 일일 수도 있지만, 문학 혹은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광대한 천하를 주유함으로써 기상을 기르고 다양한 견문을 통하여 깊은 통찰력과 안목을 넓히는 중요한 행위였다. 또한 한 시대를 지내면서 국토의 역사와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순례의 길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에 우리 국토 곳곳을 여행하고 시를 남긴 石顛 鼎鏞(1870~1948)의 기행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석전은 근대의 불교 사상가이자, 교육가, 문학가이다. 그는 여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을 두루 여행 하였다. 그 여행의 사실과 감회를 다수의 시문으로 남기고 있어 인간의 삶과 여행, 그리고 문학이 한데 어우러진 다양한 기행시문학을 조성하였다.

石顛 鼎鏞의 속성은 밀양박씨, 속명은 漢永으로 전북 완주에서 태어났

다. 나이 열아홉에 완주군 소양면 태조암에서 출가하여 錦山에게 계를 받았다. 법명은 鼎鎬이다. 널리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다 경인년(1890)에 비로소 幻應대사를 백양산 雲門菴에서 뵈고, 선암사에 나아가 涵溟, 景鵬, 擎雲 등 老師들에게 법을 전수받았다. 1895년 순창 龜岩寺의 雪乳대사의 법을 이어 당호를 映湖라고 하였다. 구암사에서 開堂한 이래, 백양사, 해인사, 법주사, 화엄사, 범어사, 석왕사 등에서 三藏을 강설하였다. 당대 불교계에는 삼대강백으로 석전과 선암사의 錦峰和尚, 화엄사의 震應和尚이 있었다. 금봉화상은 한시에 조예가 깊었으나 삼장강설에는 범연한 편이라 하였고, 진응화상은 삼장강설에는 능통하였으나 문학에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석전은 삼장강설을 주로 하면서도 經史子集과 老莊학설, 書法과 문학까지 겸통하였다고 칭해졌다.¹⁾ 1914년 동국대학교 전신인 불교고등강숙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1926년 개운사 대원암에 불교강원을 설립하여 이후 20년간 인재 배출에 주력하였다. 1948년 향년 79세, 법랍 60년으로 내장사에서 입적하였다.²⁾ 문집으로는 『石顛詩鈔』와 『石顛文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석전 문학에 있어서 여행과 문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시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행시의 전체적인 면모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주도, 금강산, 백두산 기행시를 중심으로 석전의 국토순례 기행시의 내용과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거의 전국에 걸쳐 기행시를 남겼지만, 각각 국토의 남쪽과 동쪽, 북쪽에 자리한 명승지로서 문학적, 역사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세 곳의 기행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1) <故太古禪宗教正映湖和尚行績> 『石顛文鈔』.

2) 석전의 생평에 대해서는, <石顛上人小傳> 『石顛詩鈔』, <故太古禪宗教正映湖和尚行績> 『石顛文鈔』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2. 여행편력과 기행시

2.1. 여행과 문학의 相生

석전은 수행승이었지만, 높은 문학적 관심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다. 석전의 문학가로서의 면모를 위당 정인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간혹 시를 지음에 생각을 붙임이 범상치 않고 홀로 깊고 오묘한 경지에 이르러 그 고상함은 곧바로 고인의 격조와 계합하였다. 문장도 역시 선리를 펼쳐내어 막힘이 없었다. 이미 많은 서적을 탐독하여 품은 것이 넓디넓어서, 사물에 감촉하면 분연히 솟아나오는 듯하였다. 또 정통한 바를 잘 기억하여 평생 섭렵한 것을 낱낱이 들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매양 스님을 따라 나라 안의 명승지를 유람할 때에는 산천, 풍토, 인물로부터 農工商販, 歌謠, 稗官의 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소에 익숙한 것인 듯하였으니,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망연히 미치지 못하였다.³⁾

사물에 감응하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수성과 독서와 산천유람을 통하여 온축한 精工이 어우러진⁴⁾ 석전의 문학적 자질과 역량을 이와 같이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석전의 문학, 특히 한시에 대한 감식안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저술로 『石林隨筆』이 있는데, <及到上乘詩禪一揆>·<鼎坐詩班各祖三教>·<洌上老人可傳詩話數則>·<阮堂詩評敢下頂鍼>·<一種詩式自爲半島體製> 등의 글에서 한시에 대한 고금을 넘나드는 해박한 식견과 비평적 안목을 보여주었다. 그는 『석림수필』의 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 “間爲詩，屬思不凡，獨造冥眇。其高者直契古人。文亦抒露禪理，無所滯礙。既積勤羣書，函負浩汪，有或觸之，溢然湧發，又其強記所綜，生平涉歷，靡不可舉，故每從師，游域中勝區，自山川風土人物，以至農工商販歌謠稗官之說，皆如素習，卽居是鄉者，茫然自以不及也。” 鄭寅普 撰，<石顛上人小傳> 『石顛詩鈔』.

4) 『石林隨筆』의 <天籟叶人籟詩道方圓>에서 ‘天籟之神韻’과 ‘人籟之精工’을 언급하여 천뢰와 인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였다.

어찌하여 석림수필이라 하는가. 사문 석전이 근대 禪詩의 경계를 따라 느낀대로 적은 것이다. 늘그막에 들어 더욱 눈은 어른거리고, 몇 달 사이 걸음도 옮기지 못하여 산창에 쓰러지듯 누워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黯澹한 호수와 산, 둥글고 빛나는 무지개와 달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눈에 선하다.⁵⁾

『석림수필』의 서를 쓴 시기가 계미년(1943)이니 석전의 나이 74세 때이다. 만년에 들어 지난 날 즐겨 찾았던 곳의 경치가 눈에 선하다고 하며, 그러한 기억과 느낌들을 적은 것이 이 수필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위에서 말한 몇 편을 비롯하여 그의 시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드러낸 여러 편의 글이 있는데, <天籟叶人籟詩道方圓>이라는 글에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蘇轍의 <上樞密韓太尉書>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철이 한태위에게 보낸 글에 이르기를, “글은 배워서 능할 수 없고 기는 길러서 이룰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하였는데, 지금 그 문장을 보면 너그러우며 후하고 크고 넓어서 천지의 사이에 가득차서 그 기의 크고 작음에 걸맞으며, 사마천은 천하를 다녀 사해의 명산과 대천을 두루 구경하고 연과 조 지방의 뛰어난 인물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특 트여 거리낌이 없고 자못 기이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찌 일찍이 붓을 잡고 이와 같은 글을 썼겠습니까. 그기가 흥중에 가득차서 그 용모에 넘치고, 그 말에서 동하여 그 글에 나타나서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것으로 天籟의 神韻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⁶⁾

제목 그대로 천뢰와 인뢰가 어우러져야 詩道가 원만해진다고 한다. 윗

5) “云何以石林隨筆? 沙門石顛, 隨近代禪詩境, 感而筆之者也. 自以崦嵫晚景, 重添眼華未霽. 數月來, 跣步不移, 頽臥山窓, 而靜思之, 則黯澹湖山, 輪奐虹月, 闔眼也着, 開眼也着.” <有引> 『石林隨筆』.

6) “蘇穎濱與人書云, ‘文不可以學而能, 氣可以養而致. 孟子曰我善養吾浩然之氣. 今觀其文章, 寬厚宏博, 充乎天地之間, 稱其氣之小大. 太史公行天下, 周覽四海名山大川, 與燕趙間豪俊交游, 故其文, 疎蕩頗有奇氣. 此二子者, 豈嘗執筆, 爲如此之文哉! 其氣充乎其中, 而溢乎其貌, 動乎其言, 而見乎其文, 而不自知也.’ 是可以證天籟之神韻也.” <天籟叶人籟詩道方圓> 『石林隨筆』.

글의 앞에서 말하기를, “천뢰란 그 신운을 드러냄에 순전히 천연적으로 행해져 마치 천상의 꽃처럼 잡을 수 없고, 물속에 잠긴 달과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은 것이다. 인뢰는 그 정밀함과 공교함을 드러내는데, 인력을 다 하여 마치 태산에 오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에 올라 수 많은 작은 산들을 일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⁷⁾ 하였다. 시 자체는 천뢰적이라야 하지만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뢰의 정공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 한 것이다.⁸⁾ 석전은 문학가로서 천뢰적 감수성과 인뢰적 정공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 인뢰적 정공은 바로 그의 학문과 여행이었다. 그는 <及到上乘詩禪一揆>에서, 성당의 시를 ‘第一義’ 혹은 ‘大乘禪’이라고 높였던 宋의 嚴羽는 단지 삼당으로서 기준으로 하였을 뿐이며, 오직 당대만 알고 송대는 아예 없는 것처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이 글에서 王維·孟浩然·柳宗元·蘇軾·王陽明 등의 시를 예로 들면서, ‘송·원·명·청대의 시에 혹 품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上乘詩禪이 어찌 오로지 성당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냐’⁹⁾고 하였다. 상승의 경지에 이르면 시와 선은 하나라고 하였으나, 그것이 성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시대를 막론하고 상승의 시는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가 말한 천뢰적 신운과 인뢰적 정공이 만들어 낸 시라면 어느 시대에도 뛰어난 시는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2.2. 기행시 제작

석전은 정인보, 최남선 등 당대의 지식인들과 교분을 나누며 함께 명승지를 두루 유람하기도 하였다.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7) “天籟者, 示其神韻, 純以天行, 如天花不著, 如水中月, 鏡中像者, 是也. 人籟者, 示其精工, 致以人力, 如登泰山, 步步躋頂, 一覽衆山小者, 是也.” <天籟叶人籟詩道方圓> 『石林隨筆』.

8) 李鍾燦, 「石顛의 天籟的 詩論과 紀行詩」,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12, 1989, 24쪽.

9) “及若宋元明清之代, 詩或品尚小異. 然上乘詩禪, 何獨專推于盛唐?”

일찍이 혈혈단신으로 나라 안을 두루 유람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를 짐작하시고 해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함께 여행길을 마련하였다. 동으로는 금강산에 들어가 바다를 따라 낙산사에 이르고 경포에 노닐었다. 남으로는 지리산을 유람하고 바다를 건너 한라산의 정상에 올라 말 때가 백록담에 내려와 물 마시는 광경을 보았다. 북으로는 백두산에 참례하고 천지 곁에서 쉬는데 일광이 수면에 퍼지고 만상이 아름다웠다.¹⁰⁾

석전은 최남선, 정인보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 자신의 여행을 통한 교유와 여행 편력을 <拂石譚藝>¹¹⁾에 집약하였다.

.....

素癖山水窟	평소 산수의 벽이 있어
瓢屐徧天東	단출한 행장으로 관동을 편력하고
再入瀛洲島	제주에는 두 번 들어갔고
五醉東岳楓	금강산 단풍에 다섯 번 취했네
雜隨軍馬後	여럿이 군마의 뒤를 따라
步履白頭密	걸어서 백두산 올랐네
稽首石羅漢	나한 같은 바위 앞에 머리 조아리고
坐看天江虹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앉아서 보았네.
鴨江折萬曲	압록강 굽이굽이 만곡으로 물결치고
扁舟似乘空	조각배는 허공을 타고 나는 듯
妙香三瀑奇	묘향산 세 폭포는 기이하기도 하고
方丈天王雄	지리산 천왕봉은 웅장하기만 하네

.....

위의 시에서 자신이 山水癖이 있다고 말했듯이, 남북으로는 제주에서 백두산, 동서로는 금강산과 묘향산으로 우리나라 산하의 명승지를 두루 찾았다. 또한 명승지뿐만 아니라, 호남과 영남은 물론 관북지역 등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그 감회를 시로 읊었다.

10) “常以獨身孑然，思博綜域內。師默然揣之，每於夏秋之間，挾以俱。盖嘗東入金剛，遵海至洛山寺，浮于鏡浦。南歷智異，渡海涉漢拏之頂，觀群馬下飲白鹿潭。而北禮不咸，息天池之側，日光布水，絢綵萬狀。”崔南善，〈序〉『石顛詩鈔』。

11) 『石顛詩鈔』上。

그런데 산수벽이 있다고 하였지만, 그의 여행과 기행시는 단순한 산천 유람이나 음풍농월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지도자로서 그의 생애의 일관된 정신은 한국 불교의 자주와 근대화를 향한 의지였다. 일제의 한국불교 장악에 맞서 陳震應, 韓龍雲, 吳惺月 등과 함께 민족불교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공헌했으며, 개혁적 성향의 불교유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한국불교의 근대화 과정 및 민족의 자주독립 과정에서 불교인의 자각과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¹²⁾ 이러한 석전의 실천적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당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그가 말한 산수벽과 함께 그의 여행과 국토기행시 창작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석전은 『石林隨筆』의 <到極三頂且爲休歇>에서 우리나라의 명산에 대한 평을 하였다.

항상 하얀 봉우리는 백두산의 절정이다. 천하 동북방의 분야에 처하고 천평의 고원에 광막하게 펼쳐졌고 삼강의 근원에 가득하다. 동남쪽으로 뻗어 흐르고 서북쪽에 연달아 뻗어 후예와 같은 여러 산들이 푸르니 그 누가 모든 산의 정상이라 하지 않겠는가. 또 좋은 경치를 유람하는 것을 논하자면 우리나라의 명산은 천하에서도 많다. 기이하고 험준한 산으로는 어디가 관동의 풍악 같겠으며, 웅장하고 깊숙하기로는 어느 곳이 영호남의 두류산만 하겠으며, 물과 폭포의 장엄한 절경으로는 어디가 묘향산과 같을 것이며, 바다 구름의 아스라함으로는 무엇이 한라산과 같을 것인가. 그러니 오직 백두산의 정상만 내세우겠는가.¹³⁾

자신이 여행했던 곳들을 이렇게 평했는데, 전국을 여행하며 쓴 대표적 인 기행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瀛洲紀行(甲子七月)」은 1924년 7월로, 제주로의 출발과 항해 과정을

12) 서정주 번역, 『석전 박한영 한시집』, 동국역경원, 2006, 1~2쪽.

13) “夫常白峯者，白頭山絕頂也，處於天下東北分野，曠漠于天坪之高原，磅礴于三江之源頭，流峙東南，連亘西北，孫裔之衆山森翠。其誰不曰衆岳之頂。且論覽勝，震域名山，多於天下者已。奇峭岡巒，孰若關東之楓岳。雄邃洞府，孰若嶠湖之頭流。泉瀑壯絕，何似妙香。海雲縹緲，何似漢擎者，而獨擅常白之頂乎？”<到極三頂且爲休歇>『石林隨筆』.

옴은 시로부터 제주 여행을 마치고 해남 두륜산에 있는 만일암에 당도하여 지난 일을 회고하는 시에 이르기까지 22수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重游楓岳紀行(九月五日)」은 「瀛洲紀行」 바로 뒤이어 수록되었으며, 1924년 9월 5일이라고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 모두 27수이다. 「雪際南遊草(十一月三日始程)」는 1924년 11월 3일 여정을 시작하여 영남과 호남일대를 둘러보고 쓴 기행시이다. 19수가 실려 있다. 「續南遊紀行(二十一首 三月五日始程)」은 1925년 3월 5일에 출발하여 금산사, 서석산, 조계산, 지리산 일대를 여행한 기행시이다. 「游西山草(八月十七日)」는 1925년 8월에 묘향산, 영변일대를 여행한 기행시 17수가 실려 있다. 「再入瀛洲紀行(六月十九日京發)」은 1932년 6월 19일 서울을 출발하여 제주도를 여행한 기행시 14수이다. 「遊楓岳」은 1933년에 풍악에 노닐며 지은 시 18수이다. 「白頭游草(丙寅)」는 1926년 최남선과 함께 백두산을 여행할 때 쓴 시로 23수이다. 석전은 달리 여행기를 남기지 않았지만 기행시의 제목에 날짜나 함께 여행한 인물 등을 기록하여 일정이나 동행인물, 여행 경로를 알 수 있게 하였다.

『石顛詩鈔』上·下에는 408편 59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최남선의 <서>와 정인보의 <석전상인소전>은 1939년에 쓴 것이다. 석전의 나이 38세인 1907년에 쓴 시부터 1939년 70세까지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집의 맨 앞에 <稀朝自述九章>이라는 제목 아래 9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이후 정미년(1907)에 쓴 <觀九龍淵后絕句>로부터 연도별로 편집하여 맨 마지막에는 기묘년(1939) 7월 14일에 쓴 <中元前夜聽梧桐雨滴有吟志喜>가 실려 있다.

석전의 한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경향은 기행시인 바, 그 자신도 <石顛詩鈔后自敘>¹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雙屐踏盡半天下 두 발로 천하의 반을 다 밟아 보았고

14) <石顛詩鈔后自敘>, 『石顛詩鈔』.

歸挂窓畔筇一枝 돌아와 창 가에 지팡이 하나 걸어 두었네
 不見幽竹碧琅玕 깊은 숲 푸른 대나무 보이지 않고
 滿地梧雲影旖旎 땅 가득 오동나무 그림자 한들거리네
 抖擻客塵殘綺習 나그네 길 남은 습기 떨쳐버리고
 紀行吟卷漫自釐 기행시집을 부질없이 스스로 정리했네

이 시의 뒷부분에서 이 시집을 펼쳐 다시 누워서 유람하겠다¹⁵⁾고 하였는데, 시집을 통하여 산천을 臥游하겠다는 것이다. 천하의 반을 두 발로 다 돌아보고 말년에 이르러서 기행시집을 스스로 정리한다고 하였다. 기행시가 그의 시세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말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기행시를 한 항목으로 묶어 놓은 시들 뿐만아니라 시집에 산재되어 있는 시를 보면 여행 도중에 지은 시이거나 여행과 관련된 시들이 대부분이다. 다음 장에서는 석전 시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행시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기행시 중에서 백두산과, 제주도, 금강산 기행시를 중심으로 석전의 국토순례 기행시의 내용과 의의를 논할 것이다. 여행 시기를 따라 제주, 금강산, 백두산의 순으로 살펴본다.

3. 석전의 국토 기행시

3.1. 仙界의 풍경 제주

석전의 문집에는 ‘瀛洲紀行’ · ‘再入瀛洲紀行’이라는 항목을 두어 1924년 7월과 1932년 6월 두 차례의 기행시를 수록하였다. 두 번의 제주 여행에서 얻은 기행시는 모두 36수이다. 목적지에서의 견문 이외에 목적지로 출발한 시점부터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전과정을 하나의 기행

15) “開卷瞭然先天路，臥游山川復在茲。”

시 항목으로 묶어두었다. 첫 번째 제주 여행의 출발은 목포항에서 출발하여 명량, 다도해, 벽파진, 소안도를 거쳐 제주 앞바다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두 번째 여행 때는 서울을 출발하여 순창, 영암을 거쳐 제주로 갔다. 다음은 제주로 향하면서 읊은 <鳴梁>¹⁶⁾이라는 시이다.

航到鳴梁似箭流 배가 명량에 이르니 화살처럼 빨라지고
 土人尙誦李忠侯 이 땅의 사람들 아직도 이충무공을 기린다
 獬豸十萬化魚夜 십만 왜군 물고기 밥 되던 밤
 江國女兒歌月樓 강촌 아낙네들 달밤 누대에서 노래 불렀다

명량은 해남 화원 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으로 울돌목이라고 한다. 선조 30년(1597)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12척의 전선으로 수많은 왜선을 물리친 명량대첩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 곳은 진도와 연해 있는 곳으로 석전은 제주를 향해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면서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의 거센 물결을 이용하여 적을 섬멸하였을 만큼 물살이 빠르고 거센 곳이다. 그래서 명량에 이르러 배가 쏜살같이 빨라지고 그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충무공을 기린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왜군을 무찌른 밤에 강촌의 아낙들은 달 밤 누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多島亭亭暎日斜 다도해 우뚝한 섬들 석양 빛 비추는데
 烟雲錯落似奇花 안개 구름 뒤섞여 기이한 꽃과 같구나
 波光岸影隨帆轉 물빛에 드리운 벼랑 그림자 돛을 따라 돌고
 身世蒼涼等落霞 쓸쓸한 신세 지는 노을 같구나
 <多島海>¹⁷⁾

목포항에서 출발하여 해남 울돌목을 거쳐 진도의 벽파진을 지나 완도

16) 『石顛詩鈔』上.

17) 『石顛詩鈔』上.

의 소안도를 지나왔다. 소안도를 지나면 이제는 제주로 가는 망망대해이다. 그래서 <小安島> 시에서 “평온한 바다 잔잔한 바람 부는 소안도, 푸른 바다엔 이제부터 외로운 배만 떠간다.”¹⁸⁾고 하였다. 여행의 목적지인 제주 뿐만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여정까지도 기행시에 포함하여 당시의 여로를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석전 기행시의 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백록담에서 읊은 시이다.

白鹿仙人壽曜邊 백록 선인 노닐고 수정 빛나는 기슭
 仙騎白鹿向何天 신선은 흰 사슴 타고 어느 하늘로 갔나
 四溟雲合罡風作 온 바다에 구름 덮이고 북풍이 일어
 慚愧瀛洲少夙緣 영주와 인연 적었음이 안타깝구나
 <漢拏山白鹿潭用梅泉句足成三絕(其一)>¹⁹⁾

이 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매천의 시구를 써서 세 수의 절구를 지은 것이다. 『梅泉集』권2에 <題小癡墨緣卷>이 있다. 그 시는 “백록선인 노닐고 수정이 빛나는 기슭, 달 밝은 가을 하늘 아득한 생학소리. 완당은 일어나지 않고 이옹은 죽었는데, 바다 위 푸른산은 오백년 세월일세(白鹿仙人壽曜邊, 月明笙鶴渺秋天. 阮堂不作彝翁死, 海上青山五百年)”라고 하였다. 완당은金正禧이고 이옹은 彝齋 權敦仁이다. 老人星은 南極老人星으로 장수를 상징하므로 壽星이라고 한다. 한라산을 수정이 빛나고 사슴을 탄 신선이 장수를 누리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주가 먼 바다 한 가운데 있고, 사방 바다는 구름 덮이고 북풍이 일어 자신과는 인연이 적었음이 안타깝다고 한다. 이제라도 신선의 고장을 만났으니 지난날의 안타까움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再登漢拏山絕頂有韻>²⁰⁾에서도 10년 만에 다시 한라산에 올라서 “사슴 탄 신선 만나기 바라나 구름이 가로막고, 보이는 것은 의기양양하게

18) “海穩風微島小安, 滄溟自此孤帆寒.”

19) 『石顛詩鈔』上.

20) 『石顛詩鈔』下.

돌아오는 푸른 소 뿐이다(鹿仙庶遇雲偏鎖, 唯見青牛得得還)”하였다. 청우는 푸른 들에서 풀을 뜯는 소를 실경으로 그린 것일 수 있겠지만, 노자의 도덕경을 ‘靑牛句’, 노자를 ‘靑牛翁’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선이나 도사의 이미지가 겹쳐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獐口峽>에서는 ‘백록담 신령스런 골짜기에 생학이 나는 듯 허공의 메아리 감응하고 香泉이 쏟아진다’²¹⁾고 하였다. 석전의 제주 기행시는 선계의 이미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等粟浮沈萬里汀 좁쌀 같은 배로 부침하며 만리 바다를 달려
 渾然羽化涉蓬瀛 혼연히 나는 듯 봉래 영주 건너왔네
 望京瞻斗非吾事 한양이나 북두성 바라보기는 내 일이 아니러니
 一夢中洲故未惺 신선 땅의 한 바탕 꿈 짐짓 깨지 않았네
 <濟州洋>²²⁾

목포항에서 출발한 뱃길로 제주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의 감흥을 노래 하였다. ‘羽化涉蓬瀛’이라 하였으니 마치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간다는 ‘羽化登仙’을 제주 여행을 통해 이루었다 말한듯하다. 본격적인 제주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도착한 것만으로 봉래와 영주라는 선계에 왔다고 하였는데, 제주에 대하여 평소 지닌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는 제주를 이미 선경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望京瞻斗’는 부귀공명을 우러르는 세속적 삶에로의 의지를 표상하는 말인데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고, 신선의 땅에서 꾸는 한바탕 꿈을 깨지 않겠다고 한다. 선계의 꿈이 비록 남가일몽, 일장춘몽일지라도 자신은 세속의 욕심이나 번뇌를 무심하게 내려놓고 우화등선의 꿈을 누리겠다고 한다. 그 상상의 공간이 제주이며 제주 여행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21) “鹿潭靈谷分岐處, 疊嶂依然枳怛天. 笙鶴如飛空籟應, 蒼藤急峽瀉香泉.”

22) 『石頭詩鈔』上.

3.2. 佛法이 顯現한 금강산

金剛山은 천하의 명승으로 일컬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불교와 관련이 깊은 산이다. 『동국여지승람』 회양도호부 조에 이르기를, “산이름이 다섯 있는데, 첫째는 金剛, 둘째는 皆骨, 셋째는 涅槃, 넷째 楓嶽, 다섯째는 悵怛이니 백두산의 남쪽 가지이다. 그리고 內山과 外山에 모두 108곳의 절이 있는데, 表訓寺·正陽寺·長安寺·摩訶衍·普德窟·楡岾寺가 가장 이름난 사찰이라고 한다.”²³⁾하였다. 그리고 “崔瀼가 스님을 보내는 서문에,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은 楓嶽이나 스님들은 金剛山이라고 한다. 그 설은 華嚴經에서 근본한 것이다. 화엄경에 바다 동쪽 보살이 머무르던 곳의 이름을 금강산이라고 한다.’는 글이 있다고 한다.”²⁴⁾라고 하였다. 근대의 금강산 유기에도 ‘금강산의 모든 건축과 조각과 회화가 거의 다 승려의 손으로 되었고, 그뿐 아니라 금강산을 찾아 거기 길을 닦고 봉우리와 골짜기의 이름을 지은 것이 다 승려의 손으로 되었다’²⁵⁾고 하였다.

석전의 문집에는 금강산 기행시가 두 개 항목으로 실려 있다. 「重游楓岳紀行(九月五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1924년 9월 5일을 말한다. 거듭 풍악을 여행했다고 하였으니 그 전에 풍악을 여행한 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⁶⁾ 이 항목 아래에 <同崔六堂三防峽述懷>·<三防館初霜有吟>·<晚抵長安寺>·<萬物草>·<海金剛>·<三日浦> 등이 있는데, 마지막 <三日浦> 시 끝에는 ‘楓岳行終’이라 하여 풍악 기행시가 여기까지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遊楓岳」으로, <歇惺樓晚眺>·<留題楡岾寺疊前韻>·<晚登毘

23) 『新增東國輿地勝覽』권47 「淮陽都護府」. “山名有五, 一曰金剛, 二曰皆骨, 三曰涅槃, 四曰楓嶽, 五曰悵怛. 白頭山南條也. …… 內外山共有百八寺, 表訓·正陽·長安·摩訶衍·普德窟·楡岾, 最爲名刹云.”

24) 위의 책, 「淮陽都護府」. “崔瀼送僧序, …… 俗號楓岳, 僧徒謂之金剛山. 其說本諸華嚴之書, 書有海東菩薩住處, 名金剛山之文.”

25) 이광수, 『금강산 유기』, 기과랑, 2011, 130~131쪽.

26) 이 보다 앞에 <遇雨金剛山毘盧峰> 시가 있는데, 문집의 편차로 보면 <金惺石鼎淳 自楓岳來訪北林共賦 庚申九月>과 <訪李蘭谷…內藏寺韻 壬戌四月> 사이에 있어, 이 시기는 1921년 무렵인 듯하다.

廬峰> 등 1933년에 풍악에 노닐며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문집에 시가 수록된 순서를 따라보면, 그 여정은 長安寺, 表訓寺 쪽에서 올라 비로봉을 넘어 楡岾寺, 新溪寺, 玉流洞을 지나 海金剛으로 향하였던 것 같다. 금강산의 견문을 佛世界の 顯現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다음의 시를 보자.

碧桃陰覆六花嶺 벽도가 옥화암을 어둡게 덮었는데
 矯首可能千佛參 머리를 들어 천 부처님께 참례 하겠네
 螺髻離微開列宿 멀리 늘어선 별자리 나팔처럼 빛나고
 恍然毫相透羅林 숲을 뚫는 빛 백호광명처럼 눈부시네
 <六花嶺望千佛峰>²⁷⁾

옥화암에서 천불봉을 보고 산봉우리는 부처의 현신이요, 멀리서 보이는 별은 부처의 머리 모양인 螺髮이며, 숲을 뚫고 비추는 빛은 부처의 백호광명이라고 하였다. <龍淵雜絕> 네 번째 시에서는 ‘용연의 폭포 아래 깊은 연못은 바릿대이고, 그 바릿대에 든 맑은 물을 어디에 공양할까 생각해 보니 거룩한 미륵불이 푸름에 쌓여 있다’²⁸⁾고 하였다. <龍淵雜絕> 일곱 번째 시에서는 바위에 부딪친 물결이 햇살을 받아 무지개가 피어나는 광경을, ‘영롱한 만상의 모습에 마음이 이미 덕화를 입어, 모든 것이 妙蓮華임을 비로소 믿을 수 있다’²⁹⁾고 하였다. 묘련화는 부처의 법을 연꽃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 하나하나에 도가 있다는 ‘頭頭是道’의 도리를 금강산의 승경에서 일깨우고 있다 할 것이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석전에게는 부처의 현신이나 신성한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正陽寺에 있는 歇惺樓를 읊은 시를 보자.

非仙非佛又非天 선계도 불계도 하늘도 아닌데

27) 『石頭詩鈔』上.

28) “指點豁翎碧玉鉢，有誰擎出龍王宮。盛來綠淨向誰供，彌勒儼然蒼翠中。”

29) “浪淘層磔激成霞，尾赤斷虹斜復斜。萬竅玲瓏心已化，頭頭始信妙蓮華。”

崑嶂皚皚啣紫烟 새하얀 바윗산에 자줏빛 연무 자욱하네
 誰道登斯閑閣筆 누가 이곳에 오르면 붓을 놓아야 한다했나
 通身宛爾入詩禪 온몸이 완연히 시 삼매에 든 것을
 <歇惺樓>³⁰⁾

혈성루는 1759년 중수하고, 1781년에 중건했다고 한다.³¹⁾ 『蓮潭大師林下錄』의 <表訓寺正陽庵歇性樓重勅序>에 의하면, ‘신라, 고려시대의 韻釋이 세웠으며, 혈루는 세속의 꿈을 깨워준다. 온산의 정맥이 모이는 곳이에요, 많은 계곡의 영기가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서 천봉우리가 화살처럼 서서 돌아보는 곳마다 읊하는 듯하고 만 즐기 폭포수는 우레처럼 울린다.’³²⁾고 하였다. 그리고 “錦障, 玉屏을 손가락 끝에 감돌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거뒀들여 풍광을 관할하는 곳이 혈성루이다.”³³⁾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뛰어난 경치를 만났으니 시가 없을 수 없겠지만, 오히려 그 경치에 압도되어 감히 붓을 들 수 없어서 붓을 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붓을 놓았으나 눈앞의 아름다움과 시인의 감응은 막을 수 없어 온 몸이 이미 시와 선이 하나인 詩禪一如의 경지에 들었다고 한다.

清晨入曉雲 맑은 새벽 효운동에 드니
 靄雲琉璃碧 상서로운 구름 유리처럼 푸르네
 石竇深谿澗 바위굴 텅 비어 깊고
 瀑水空淅瀝 폭포수는 허공에서 쏟아지네
 颯颯落木風 우수수 낙엽에 부는 바람에
 涼澗騷人臆 시인의 마음 시원하게 트이네
 兀坐古岩頭 오랜 바위에 꼳꼳이 앉아보니

30) 『石顛詩鈔』上.

31) 李東述 編, 『韓國寺刹寶鑑』, 우리출판사, 1997, 437쪽.

32) 『蓮潭大師林下錄』 권3, <表訓寺正陽庵歇性樓重勅序>(한불전 10-261~262). “正陽寺歇惺樓者, 相傳羅麗之韻釋所創, 爭奈杞宋之文獻無徵. 正面當杲日之陽, 歇樓惺塵世之夢爾. 其一山正脉之輻湊, 萬壑靈氣之含藏, 簇立千峯 拱揖指顧之內, 雷鳴萬瀑.”

33) 趙秉鉉, 『成齋集』<金剛觀叙>. “錦障玉屏, 繚繞指端, 收拾朝暮, 管領風烟者, 歇惺樓也.”

蒼峰鑑歷歷 푸른 봉우리들 역력히 비추네
 <曉雲洞>³⁴⁾

<金剛觀敘>에 “관음굴을 지나 효운동에 이르렀는데 이곳이 바로 九龍이 머물렀던 곳이다. 船潭에 이르면 옥같은 폭포가 눈처럼 쏟아져 바위를 울리며 다투어 흐르는데 기암이 사방에 둘러있다.”³⁵⁾고 하였다. 『金岡日記』에서는 ‘외금강으로 들어서 隱仙臺와 十二瀑을 보았는데 아래로 내려와서 효운동을 둘러보았다.’³⁶⁾고 하였으니 인근의 경승을 짐작할만하다. 효운동 골짜기를 울리는 폭포수와 가을 숲에 불어오는 바람이 흥금을 시원스럽게 한다. 감상을 굳이 말하지 않고 ‘淅瀝’·‘颼颼’ 같은 의성어를 써서 가을 산계곡의 물과 바람의 생생함을 잘 느끼게 하였다. 맑은 새벽의 상쾌하고 신선한 산골짜지에서 이끼 낀 바위에 등을 곧게 펴고 앉으니 푸른 산봉우리들이 선명하게 비춰온다고 한다. 시인의 감성으로 금강산의 자연을 대하기에 굳이 시인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였고, 평생 구도의 길을 걸었던 수행승이었기에 생동하는 자연에서 투철하게 깨어 만상의 여실한 실상을 관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3.3. 雄渾한 氣像의 백두산

석전은 병인년(1926) 6월에 최남선을 비롯한 교육가 5,60인과 백두산을 여행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의 조종으로 여겨지며 민족의 聖山, 靈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최남선은 <白頭山觀參記 卷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4) 『石頭詩鈔』上.

35) 趙秉鉉, 『成齋集』 <金剛觀敘>. “過觀音窟至曉雲洞, 此卽九龍所棲也. 抵船潭, 玉瀑如雪, 觸石爭流, 奇巖四被.”

36) 조용호 옮김, 『19세기 선비의 의주 · 금강산 기행』, 삼우반, 2005, 137쪽. 이 책의 186쪽에 『金岡日記』 4월7일(辛卯日)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傍有隱仙臺登觀, 越見十二瀑, 曲曲爲奇觀. …… 此亦外山之名境云, 仍下觀曉雲洞. 又轉而東進入五里, 觀缸潭.”

白頭山은 一言으로 蔽하면 東方原理의 化圀입니다. 東方民物의 最大依支요, 東方文化의 最要核心이요, 東方意識의 最高淵源입니다. 東方에 있어서 一切의 樞機가 되어 萬般을 斡旋運化하고 一切의 心臟이 되어 萬般을 布施傳通하고 一切의 生分이 되어 萬般을 蘇潤旺新케 한 者가 白頭山입니다. 既往에 그러한 것처럼 現在에도 또 將來永遠히 難思議할 功德의 所有者가 그 이입니다.”³⁷⁾

석전은 <白頭游草 丙寅>³⁸⁾ 시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병인년 (1926) 6월 17일 최남선과 북쪽으로 유람하여 풍산에 이르러서, 교육가 58인과 모여 이틀을 묵었다. 20일 60인이 함께 차를 타고 일찍 출발하여 갑산의 마상령에 이르러 백두산을 멀리 바라보니 감회가 있어 시를 짓는다.”³⁹⁾라고 하였다.

白頭何渺漠	백두산은 어찌 그리 광막한가
倦眼掛長空	아스라이 보니 끝없는 공중에 걸려 있네
雖然非天上	비록 그리하나 천상이 아닐 것이니
去則躡崆峒	올라간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네
青海厚峙林	푸른 바다 같은 깊고 우거진 숲은
晝暗虎嘯風	낮에도 어두워 호랑이 포효한다네
黃華冷不笑	황국도 차가워 피지 않나니
曾泣北遷公	일찍이 북쪽으로 유배 온 이들 눈물 흘렸다네
.....	
見說望德山	듣자니 망덕산은
盛昔有祠宮	성대했던 옛적에는 사당이 있었다는데
滄流橫濫已	푸른 물 기세 등등 넘쳐흘러
只見草樹籠	다만 초목만 무성히 보이는 구나
何土是乾淨	어느 땅 마르고 깨끗한가
隴首亦泥濘	언덕 마루도 진흙밭이네

37) 崔南善, 『白頭山觀參記』, 《韓國現代隨筆集資料叢書》2, 태학사, 1987, 1쪽. 일부 표기를 현대어에 맞게 고침.

38) 『石頭詩鈔』上.

39) “丙寅六月十七日. 與崔君南善, 北遊抵豐山, 相會教育家五十八人申宿. 二十日六十八人同車早發, 至甲山之馬上嶺, 遙瞻白頭山, 感而有賦.” 여기에 덧붙인 주에 “嶺一名望德山, 尙距白頭山三百四十里.”라고 하였다.

百昌爭變化 만물이 다투어 변화해도
 白頭猶撐穹 백두는 여전히 하늘을 이고 서 있네

 <白頭游草 丙寅>

이 시는 5언 52구로 된 장편시이다. 먼저 광막한 북방에 끝없는 하늘에 걸려있는 듯한 백두산의 범접하기 어려운 모습을 말하였다. 그렇지만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내었다. 옛사람들은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이고 북극성의 아래를 崆峒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높고 험한 백두산 정상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리고 푸른 바다와 같이 우거진 숲을 말하였는데 숲이 울창하고 산이 높고 깊어 낮에도 호랑이가 포효하며, 서리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국화가 날이 추워 피지 못한다고 하였다. 망덕산은 함경도 갑산도호부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단을 설치하고 望祭하였다고 한다.⁴⁰⁾ 성대했던 옛적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는데 황폐해진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이렇듯 세상의 영고성쇠에 따라 물화는 변하지만, 오직 백두산만은 하늘을 떠받치고 우뚝하다고 한다. 역사의 격랑 속에서 굳건히 세월을 견딘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말한 것이다.

백두산에서 웅혼한 기상을 느끼는 것은 산 자체의 거대함과 신비함에 연유한 것이겠지만, 북방의 거친 환경이 그 굳건함을 더해준다 할 것이다. 백두산 주변의 산과 들에 대하여 <虛項嶺天坪行>⁴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西開滿遼巨山河 서쪽으로 만주 요동 거대한 산하 열리고
 天坪千里絕比隣 천평 천리 길엔 이웃이 끊겼네

40) 『신증동국여지승람』제49권, 「함경도 갑산도호부」에 “白頭山壇, 영종 43년에 명하여 望德山에 단을 설치하고 望祭하였다.”라고 하였다.

41) 『石頭詩鈔』上.

氷雪始泮五六月 얼음과 눈은 오뉴월에야 녹아
 滄海漫漫沒蹄輪 끝없이 넓은 진펄에 발굽 바퀴 묻히네

短枝躑躅花始發 척촉화 짧은 가지 비로소 뻗고
 剛喜流夏忽逢春 여름 지나며 문득 봄을 만나 기쁘네
 隔林布穀媚春陽 건너편 숲 뻐꾸기는 봄인줄 좋아서
 如此荒疇勸畊均 이 황무지에 들일을 권하네

〈虛項嶺天坪行〉

갑산을 지나 해산을 거쳐 보천과 포태리를 지나면 허항령과 삼지연에 이른다. 이 시에서 ‘서쪽으로 만주 요동 거대한 산하가 펼쳐있고, 천평 천리길에는 이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천평을 최남선은 朝鮮最初의 立國地라고 하였다.⁴²⁾ 광막한 북방의 산하를 그리면서 때는 6월인데 철쭉꽃이 비로소 피고, 뻐꾸기는 봄인줄 알고 운다고 하였다. 백두산을 가는 길에서 보는 산하의 모습은 광막함 그대로이다. 이렇게 거칠고 먼 길을 지나 백두산 정상에 올라서 천지를 보며 느낀 감회를 읊은 시 또한 거대한 산의 기상을 느끼게 한다.

風雨吹吾急 바람이 나를 급히 내몰아
 輕輕上白頭 걸음을 재촉하여 백두산에 올라보니
 岡巒觸石拔 뒗부리는 바위에 부딪히며 솟았고
 滄渤騰空浮 푸른 물은 튀어 올라 허공에 떠 있으며
 突兀岳獅立 바위 사자들이 우뚝하게 섰고
 翱翔水鳥流 물새들 흐르듯 빙빙 날아도네
 唵鳴龜鼉伏 홀연 어두워지니 거북과 악어가 숨고
 鬪壁鬼神愁 깎아지른 절벽에 귀신도 수심한다

睠言北山史 지난날 이 북녘 산의 역사를 돌아보면
 終古幾人憂 자고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근심하였던가
 四海爭隨黠 온 세상이 간교하게 서로 다툰 때

42) 최남선, 앞의 책, 113~114쪽, 〈朝鮮國 胎生地〉.

天民長守愚	하늘이 내린 우리 백성은 우직하기만 했네
.....	
迢然千仞表	초연히 천만 길 밖으로 벗어나서
灑脫萬情由	온갖 정을 말끔히 씻어내노라
霏散紛虹霓	짜라기눈 흩어지고 무지개 어지러운데
趾高近北斗	발 디딘 곳 높아서 북두성에 가깝구나
膽腔洗如月	속마음을 씻어내어 달처럼 맑게 하니
裘袂颯生秋	옷깃과 소매에 가을바람 상쾌하다
.....	
<登白頭頂俯瞰天池 五排> ⁴³⁾	

이 시는 46구로 된 5언배율이다. 시에서는 먼저 백두산 정상에 올라서 본 기이하고 삼엄한 풍광을 그렸다. 그리고 북녘산의 역사를 회고하였는데, 온 세상이 간계를 부릴 때 하늘이 내린 우리 백성만 길이 우직함을 지켜왔다고 한다. 누대에 걸친 북방의 역사를 회고하였겠지만, 그 중에서 1712년 백두산에 세운 청과 조선의 국경비라고 하는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역사가 떠올랐음직하다. 석전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던 최남선은 정계비와 관련된 역사를 자세히 언급하고, “시방까지 214년 동안 조선인의 게으름과 부끄러움을 탄핵하는 당사자로 듣는 이 없는 곳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것임을 알겠다.”하고, 정계비를 세울 당시 우리측의 감계사로 갔다가 中路에서 돌아온 인물들을 일컫기에도 더럽다고 비판하였다.⁴⁴⁾ 석전은 <分水嶺 定界碑處> 시에서 ‘암록 두만 두 강이 나뉘는 곳에 이끼 낀 작은 비석 구름 되려하는데, 烏管의 말발굽 소리 어제인듯 울린다.’⁴⁵⁾고 하였다. 청 황제의 명으로 정계비를 세운 烏喇總管의 말발굽 소리가 아직 생생하다고 한다. 그런 감회가 있었기에 위의 시에서 우직하기만 했던 우리 백성들을 안타까워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

43) 『石顛詩鈔』上. 심경호, 『한시기행』, 이가서, 2005, 441~446쪽에 이 시가 소개되었는데, 번역은 이를 따르고 일부 수정을 가하였음.

44) 최남선, 앞의 책, 202~229. <눈물에 저진 定界碑> · <國境問題의 原因經過>에서 정계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45) “長江鴨頭兩源分, 短碣蒼蒼欲化雲. 烏管馬蹄如昨响, 蠟梅金萼至今薰.”

고 이어서 ‘북두성에 닿을 듯 높은 백두산 정상에 올라보니 속마음이 씻기어 상쾌한 기상을 느낀다.’⁴⁶⁾고 하였다. 한 편의 시에서 백두산은 그 자체로 우리민족의 역사이며 깨끗하고 장쾌한 기상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석전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국토를 여행하고 여행의 견문과 감회를 기행시로 남겼다. 그의 문집에 전하는 시가 대부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 할 정도로 기행시에 관심을 가졌다. 스스로 산수에 깊은 병이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발로 찾았다. 여러 편의 심도 있는 시문 비평을 남길 정도로 한시에 조예가 깊었고, 당대 불교의 대표적인 교육가로서 학문의 경지도 높았고, 한국불교의 자주성 확보와 근대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도 강했다. 이렇듯 시적 감수성과 평생에 걸친 여행, 학문적 깊이가 그 시문학의 바탕이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금강산, 백두산 기행시에 대하여 각각 선계의 풍경, 불법의 세계, 웅혼한 기상을 형상화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석전의 기행시는 여행 목적지에서의 감상 뿐만아니라 출발에서 돌아오기까지 여행의 전과정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제주 여행의 경우 제주기행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포항 출발부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해남 대흥사에 이른 전과정을 담았다. 백두산 기행시는 백두산에서 삼백리나 떨어져 있는 망덕산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쓴 장편시로 시작하여 정상등정, 이후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신의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금강산 기행시는 제주와 백두산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맥락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날짜, 동행한 사람 등의 상황을 제목 아래에 적절하게 기록하여 여

46) “靄散紛虹霓，趾高近北斗。膽腔洗如月，裘袂颯生秋。”

정을 알게 하였는데 이것이 시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석전의 기행시가 이렇게 시문 자체가 맥락이 있는 여행기로 느껴지게 한 것은 그의 기행시가 단순한 유람의 감흥보다는 당시 국토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불가문학의 시는 그 지향이 주로 산사의 삶과 수행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 석전의 기행시는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그 지향점이 밖으로 국토 전체를 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석전의 기행시는 문학가이자 수행승의 통찰력 있는 안목으로 그 견문과 감회를 시로 형상화 하여 근대 우리 국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石顛 鼎鎬, 『石顛文鈔』

———, 『石顛詩鈔』

蓮潭 有一, 『蓮潭大師林下錄』

趙秉鉉, 『成齋集』

『新增東國輿地勝覽』

김지남 외 저,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1998.

서정주 번역, 『석전 박한영 한시집』, 동국역경원, 2006, 1~2쪽.

심경호, 『한시기행』, 이가서, 2005, 441~446쪽.

심경호, 『산문기행』, 이가서, 2007.

안재홍 지음, 정민 풀어씀, 『백두산등척기』, 해냄, 2010.

이광수, 『금강산 유기』, 기과랑, 2011, 130~131쪽.

李東述 編, 『韓國寺刹寶鑑』, 우리출판사, 1997, 437쪽.

이서행 · 정치영 편,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이중찬, 「石顛의 天籟的 詩論과 紀行詩」, 『한국문학연구1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9, 24쪽.

조용호 옮김, 『19세기 선비의 의주 · 금강산 기행』, 삼우반, 2005, 137쪽. 186쪽.

최남선, 『白頭山觀參記』, 태학사, 《韓國現代隨筆集資料叢書二》, 1987, 1쪽. 113~114쪽. 202~229쪽.

최남선 지음, 임선빈 옮김, 『백두산근참기』, 경인문화사, 2013.

<Abstract>

Travel Poetry of Seokjeon Jeongho

Kim, Seok-tae

This research is a consideration on the travel poetry of Seokjeon Jeongho(石顛 鼎鎬), a modern Buddhism thinker, educator, and writer. Travel poetry is to write experience of travel in poem. In literature, travel was an important deed to broaden deep insight and discernment through growing spirit and various experience by touring the broad world. Also, it was a road of pilgrimage to trace the history of the land and human life by being absorbed in beautiful nature.

Seokjeon prepared a wide view of Buddhism as well as Confucianism, veteran science, and literature. He left high-level criticism on the literature, and created lots of poems and proses. Seokjeon, who prepared wide knowledge and literary competence widely traveled almost all regions of Korea. He composed various travel poetry literature combined with human life, travel, and literature by leaving the experience and inspiration on the travel with several poems. Most of his poem works were travel poetr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ravel poetry of Seokjeon mainly with Jeju island, Geumgang mountain, and Baekdusan travel poetry. Jeju, Geumgang mountain, and Baekdusan are very beautiful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places, located in the south, east, and north of Korea respectively.

Jeju travel poetry implies the image of Seonkyung, Geumgang mountain implies Buddhistic atmosphere, and Baekdusan implies grand

spirit. Poetic aspect differs along with landscape of each region and the historical emotion.

Travel poetry of Seokjeon expressed the process of travel from start to return including impression in the travel destination with poem and properly recorded the situation of the background of poem creation such as date, fellow traveler, etc. This way, the point that poetic phrase itself is felt like a travel site with context is a characteristic of travel poetry of Seokjeon. Seokjeon viewed the history of each place of our land, people's life, and the nature with an affectionate sight, and embodied that impression in poem through the sensitivity and sight of a poet as well as a Buddhist monk.

Key words : Seokjeon Jeongho, travel poetry, Jeju island, Geumgang mountain, Baekdusan

투고일 : 2015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 ~ 8월 13일, 게재확정 : 8월 13일